

제2장

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전망

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전망

I. 일반현황¹⁾ (2017. 7. 1 기준)

□ 기본현황

- 인 구 : 137천세대, 334천명 (부산시 전체의 9.31%)
- 면 적 : 41.7km² (부산시 전체의 5.4%)
- 행정구역 : 16동 444통 2,655반
- 공 무 원 : 843명
- 행정조직 : 3국 2실 1단, 21과, 의회사무국, 보건소, 2사업소, 16동

□ 기반시설

- 도 로 : 237km (도로율 18.4%)
- 주 택 : 132천호 (보급율 104.1%)
- 상 수 도 : 29.0천전 (보급율 100%)
- 하 수 도 : 868km (보급율 95.3%)
- 도시철도 : 6.4km (1호선, 6개역)
- 공원·유원지 : 53개소

□ 생활환경

- 문화관광시설 : 36개소
(문화회관1, 도서관2, 작은도서관16, 주민센터16, 영화관1, 관광호텔1)
- 교육기관 : 63개교 (대학교2, 고14, 중16, 초27, 특수학교1, 기타3)
- 체육시설 : 329개소 (체육도장91, 골프연습장56, 수영장2, 기타180)
- 어린이집 : 201개소 (국공립18, 법인16, 민간78, 가정87, 직장2)
- 등록차량 : 115,058대 (승용94,234, 화물16,231, 기타4,593)

1) 2016년 지역기본자료(사하구)

□ 사회복지 및 보건·의료

- 복지시설 : 64개소
 - 복지관 5, 장애인 12, 노인 22, 여성 2, 아동 20, 노숙인 1, 자활센터 2
- 의료업소 : 500개소 (병원 43, 의원 176, 치과의원 103, 한의원 87, 기타 91)
- 약 업 소 : 507개소 (약국 119, 한약방 1, 의료기기판매업 204, 도매상 15, 안전상비 의약품판매 168)

□ 지역경제

- 공업입지 : 9.48km², 등록업체 1,610개, 종업원 31,497명
- 공단현황 : 2,815천 m², 623개 업체
 - ▷ 신평 · 장림산업단지 (885천 m², 145개 업체),
 - ▷ 협업화산업단지 (1,930천 m², 478개 업체)
- 유통시설 : 40개소 (대형마트 3, 쇼핑센터 2, 전통시장 15, 기타 20)

□ 국내외 자매결연, 우호협력 도시 현황

- 국 내(1) : 경기도 안성시
- 해 외(1) : 중국 상해시 갑북구

□ 재정규모

<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우 리 구 (구성비)	부 산 시 (구성비)	비고
계	4,675 (100%)	120,920 (100%)	
일반회계	4,422 (94.6%)	83,244 (68.8%)	
특별회계 (기타, 공기업)	184 (3.90%)	25,660 (21.2%)	
기 금	69 (1.50%)	12,016 (10.0%)	

※ 재정자립도²⁾ 16.7%, 재정자주도³⁾ 28.2%

2)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 가늠 지표, 자체수입액 /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, 자체수입=지방세+세외수입

3) 재량적·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재원비율, (자체수입+자주재원) /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, 자주재원=지방교부세+조정교부금등

Ⅱ. 대·내외 경제 전망

세계경제 전망

- 확장적 거시정책,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선진국·신흥국 동반 회복세 지속 전망
 - 그간의 확장적 재정·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수출·소비·생산 증가
 - 중국은 수출 및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, 자원신흥국 유가 회복으로 성장세 확대
- 다만, 유가하락·통화기조전환·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 상존
 - 최근 유가는 美 세일오일 증산 등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하락
→ 하락세 지속시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우려
 - 연내 美 금리인상 및 자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, ECB 통화기조 전환 가능성 등은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
 -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, 美 트럼프 정부 경기부양 정책 관련 불확실성 증가도 세계교역시장 위협 요인

<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 , IMF, '17.7월) >

	'15년	'16년	'17년	'18년
세 계	3.1	3.2	3.5	3.6
· 선진국	2.3	1.7	2.0	1.9
· 신흥국	4.3	4.3	4.6	4.8

국내경제 전망

-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나, 성장 모멘텀 다소 둔화 전망
 - 상반기 견조했던 설비투자·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, 회복 모멘텀 부재로 소비회복은 지연
 - ※ (설비) 대규모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집중, (수출) 유가약세로 상승세 둔화
 - 건설투자는 착공·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완만히 둔화
- 고용 증가세 약화, 물가는 안정세가 예상되나 리스크 상존
 - 고용은 상반기 양적 개선세를 주도했던 건설업 호조가 약화되며 증가세 둔화, 제조업 더딘 회복으로 고용의 질 부진 지속
 - ※ 취업자증감(1~6월, 만명) : (제조업) △6.8, (자영업) 11.8
(건설업) 14.4
 - 물가는 유가 상승폭 축소 등으로 상반기 대비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나, 폭염·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리스크 상존
-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, 美 추가금리 인상 등 통화기조 전환 가속화시 가계부채·부동산 리스크 확대 우려

2016~2020 국가재정운용 전략

□ 기본방향

①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

- 저성장, 양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·사회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
- 공정경제 기반 위에 중점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중심 경제, 소득주도 성장, 혁신성장을 구현
- 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

② Zero-base에서 양적·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 개혁도 병행

- 성과 미흡,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새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
- 보상체계 혁신, 전달체계 개선, 정기적 존치평가 등 강도 높은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'19년 예산부터 반영
- 고소득층·대기업 과세 강화, 비과세·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

③ 예산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의 민주성·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시스템 혁신을 병행 추진

- 국민이 예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(제안·심사·결정)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고, 재정정보 공개 확대

□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- (사회 분야) 일자리 중심·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구현을 위해 투자 확대
 - (일자리)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 강화
 - (복지) 아동수당 도입, 기초·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
 - (교육)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,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
- (경제 분야) 그간의 투자 스톱을 감안하여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고,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
 - (R&D)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R&D를 적극 지원하고 R&D 투자 효율화를 병행 추진
 - (SOC) 시설투자는 축소하고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제고, 생활 밀착형 안전 강화, 성장동력 확충 등에 집중
 - (농림) 농업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집중
- (안보·안전 분야)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위력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, 환경위해요인 대응·먹거리 안전 등을 위한 투자 확대
 - (안보) 국방 핵심전력 확대 및 병 급여 단계적 인상 추진
 - (안전) 선제적 예방 투자를 확대 및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